

구쇼묘진 신사와 등롱

구쇼묘진은 신사이지만 불교 사원 경내에 지어져 있습니다. 일본의 역사에서 1868년에 정부가 불교와 신도(神道)를 공식적으로 분리한다는 명령을 내릴 때까지 천 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 이 두 종교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. 그러나 정부에 의한 이 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지금도 구쇼묘진과 닌나지 절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불교 사원의 수호신으로서 경내에 신사가 지어져 있는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.

구쇼묘진을 구성하는 세 채의 건물에는 혼텐(本殿)에 1 위, 그리고 혼텐에 인접하는 두 채의 하이텐(拜殿)에 4 위씩, 합계 9 위의 신이 모셔져 있습니다. 이 신들은 모두 교토 곳곳의 주요 신사에 모셔져 있었는데, 닌나지 절과 관계가 깊었던 조정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닌나지 절에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. 닌나지 절은 우다 천황(867~931년)이 퇴위 후에 초대 주지가 되어 창건한 절로 1867년까지는 황족의 자제가 주지를 맡는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. 구쇼묘진 혼텐에는 제 15 대 천황인 오진 천황의 신령이며 황실과 무사의 수호신이라는 하치만 신이 모셔져 있습니다. 혼텐 앞에 있는 3 기의 석등은 현재의 신전이 완성된 1644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. 이 석등들은 다도를 즐기는 사람이었고 등롱 장인이기도 했던 후루타 오리베(1544~1615년)의 이름을 딴, 오리베 등롱이라는 양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대좌 상부의 둥그스름한 형상과 꼭대기에 올려진 흑처럼 생긴 보주가 특징적입니다.